

문화



현대무용가 김미선



희망나무 영오케스트라 김정선 단장



바이올리니스트 양새미



문화기획자 규랑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

지역 '젊은 예술인들' 그들의 열정은 빛났다

올해 광주일보는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에 주목했다. 창사 60주년을 맞아 게재한 '젊은 예술인들' 시리즈에 등장한 20대~40대 초반의 젊은 그들은 한해동안 땀 흘리고, 고민하며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였다.

광주일보가 주목한 젊은 예술인 올 성과 국제대회 수상·중앙무대 데뷔 등 큰 활약

현대 무용가 김미선(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씨는 올해 최고의 한해를 보냈다. 지난 10월 막을 내린 제21회 전국무용제에서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의 '자메뷔(jamais vu)'가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김씨도 안무상과 연기상을 한꺼번에 받았다. 안무상 부상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얻은 김씨는 내년 한달동안 뉴욕에 머물러 현대 무용의 흐름을 경험할 계획이다.

김씨는 전남대 체육학과 박사과정에서 스포츠 심리학을 전공하며 이론 공부에도 박차를 가했다. 희망나무 영오케스트라를 이끌어 온 김정선 단장은 올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기획한 '꿈의 오케스트라 네트워크 부분'(이하 꿈오넷) 수석 강사로 선정돼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또 하나 의미 있었던 것은 리처드 웅재 오닐이 참여한 프로젝트였던 '안녕, 오케스트라'에 음악감독으로 합류한 일이었다. MBC가 기획한 '안

녕, 오케스트라'는 안산문화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음악과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담은 다큐로 1·2부가 방영됐고, 내년 2월 3·4부가 방송된다. 개인적으로는 한양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것도 올해의 수확이다.

바이올리니스트 양새미씨에게도 바쁜 한해였다.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무대는 가야금 연주자 성심은씨와 함께 진행했던 '가야금 산조' 연주. 또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나무르오케스트라와 리더로 참여중인 현대음악 앙상블 투미니시에가 진행한 6차례 공연에 참여했다.

또 이후성·박재연씨와 트리오 무대, 강숙자 오페라단의 '버섯피자', '혹부리 영감' 무대 등에 참여했으며 11일에는 독주회도 가질 예정이다. 문화기획자 규랑씨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했다. 5·18 전야제 총감독, 5·18인권상 축하 음악회 연출, 비엔날레 시민참여 프로그램 '주말 예술 만찬' 프로그램, '굿모인 알림' 총감독, 광주시립극

극단 정기공연 '관' 무대·영상 감독, 전국연극제 큐레이터 등 셀 수 없이 많은 일을 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독재자와 평화 운동가들의 얼굴을 그린 이화작가의 '웃기지 마라, 울리지 마라' 전을 자비로 직접 기획한 일도 의미있었다.

최연소 나이로 전남도립국악단에 입단했던 소리꾼 김주리양은 올 한해 국악단 활동에 적응하며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최근에는 국악단이 매주 토요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고 있는 '도립국악단 토요일'에서 열여섯 명의 한국어로 사회를 보고 있다. 내년에는 '춘향가' 완창 발표회를 준비중이다.

올해 첫번째 독주회를 연 바이올리니스트 이종만(광주시립교향악단 악장)씨는 개인 연주 활동과 함께 클래식 음악감상실 '다락'에서 매일 한차례씩 '이종만의 생생클래식'을 진행하고, 호남신학대학교의 '풍만 클래식' 강사로 참여하는 등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 섰다.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씨는 지난 8월 광주시립미술관의 청년 작가 초대전 대상으로 선정됐고 광주문화재단이 주최한 미디어페스티벌 총감독까지 맡아 미디어 아티스트로서의 역할을 선보였다.

특히 지역 작가로는 드물게 국내 유명 상업 갤러리 진화랑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으며 인도 그룹전에도 참여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어 지역 미술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원디자인사 황지해씨는 국내 최초로 180년 전통의 영국 찰스 플라워쇼에 공식 초청을 받고도 제작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출품할 기회를 놓쳐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지역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 출품한 '고요한 시간(Quiet Time)-DMZ 금지된 화원(Forbidden Garden)'은 '쇼 가든' 부문 금메달과 올해 신설된 회장 특별상을 동시에 받는 영예를 안았다. 황씨는 이후 일본 가드닝월드컵과 광주 비엔날레 등에도 참여했다.

내년 '순천 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하는 그는 1만2000평에 '신권 가

든-갯지렁이 다니는 길'과 공연장인 '빨'을 조성하게 된다.

20대의 젊은 작가 이조흠씨는 '라운드테이블'을 주제로 한 광주비엔날레를 패러디, '스퀘어테이블'전을 대인시장에서 기획해 '톡톡' 튀는 발랄함을 보여주면서도 진지함이 엿보이는 다양한 작품들을 서울·광주 등 수십여차례의 단체전에 선보였다.

내년에는 서울 삼정동에서 개인전을 열고 본격적으로 중앙 무대에 데뷔하겠다는 각오다.

대인시장 내 대인예술공간인 미테우트로 디렉터 조승기씨에게도 올해는 남다르다.

그는 지금까지 초청으로 이뤄졌던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워크숍, 세미나가 올해부터 미국(2명)을 비롯, 태국, 일본, 필리핀 등에서 온 작가·큐레이터들이 자비를 들여 길게는 1년 6개월 동안 머무른 공간으로 바뀔 점에 의미를 뒀다. 또 태국 수도 방콕에 'Zone D'라는 창작 예술 공간도 마련한 것도 의미있는 행보였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올 마지막 공연은 신청곡과 함께

다락, 내일 '조현영 피아노토크' 무료공연

'신청곡으로, 미리 크리스마스' 피아니스트 조현영씨는 올 초부터 매일 둘째주 수요일 클래식 음악감상실 '다락'에서 '조현영의 피아노 토크'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하우스콘서트를 통해 다락과 인연을 맺은 조씨는 매회 라흐마니노프, 슈만 등 작곡가들을 소개하고 그의 음악을 직접 연주하며 클래식팬들과 함께 했다.

오는 12일 오후 7시50분 열리는 올 마지막 공연은 회원들의 신청곡을 받아 레퍼토리를 꾸렸다. 홈페이지(http://cafe.daum.net/darakclassic)를 통해 신청받은 곡 가운데 쇼팽 '녹턴 9-1, 9-2', '왈츠 64-2', 슈베르트 '악흥의 한 때' 중 3번 등 클래식을 비롯해 '화이트 크리스마스' 등 캐럴, 팝송,



조현영 박다연

영화음악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바이올리니스트 박다연(광주시립교향악단원)씨와 소프라노 오송하(전남대 등 출강)씨가 함께 무대를 꾸민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226-408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통음악과 현대창작, 해금속으로

해금 앙상블 '활' 13일 빛고을국악전수관

빛고을국악전수관 목요상설열린국악한마당이 해금 연주자들을 초청, 공연을 갖는다.

오는 13일 오후 7시 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무대 출연자는 전통음악과 현대 창작곡들을 연주하는 해금 앙상블 '활'이다.

이번 연주에서는 국악 관현악곡을 해금 중주곡으로 재구성한

'소리놀이1+1', 영화'미녀는 괴로워' OST '별', 초연곡인 '꿈꾸는 희망' 등을 선보인다. 또 애절함이 묻어나는 '썩대머리', 서정적인 선율의 '할아버지 시계', 피아노와 해금 선율이 어우러진 '석양', 양방인의 대표곡인 '프론티어'가 연주된다. 관람료 무료,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고인 박웅현 '인문학으로 창조하기'

광주MBC 교양강좌, 13일 광주대 백인관

광고인 박웅현씨가 광주를 찾는다. 광주MBC 교양강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광주대 백인관 2층 콘퍼런스룸에서 박씨를 초청, '인문학으로 창조하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제일기획에서 광고 일을 시작한 박씨는 '그녀의 자전기가 내 가슴속으로 들어왔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잘 자, 내 꿈 귀!' SK텔레콤 '생활의 중심', 네이버 '세상의 모든 지식' 등의 카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책은 도끼다' 등 베스트 셀러를 펴내기도 한 그는 이번 강좌에서 책 속에서 영감을 찾고, 일상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창작의 과정과 광고 이야기를 들려준다.



티켓은 시네 배부처(광주MBC 홈페이지 참조)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연극, 뮤지컬 티켓 등 푸짐한 상품도 준다. 문의 062-360-26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수십년 일궈온 작품세계 조재환 전 13~19일 무등갤러리



'우포에서'

한국화가 조재환씨가 13일부터 19일까지 광주시 동구 공동 무등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조씨는 50년이 넘는 작품 수백여점의 단체전에 다양한 작품을 내놓았지만 개인전은 지난 1980년 이후

30여년 만에 마련한 전시다. 그만큼 수십년간 일궈온 조씨의 왕성한 작품 세계를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자리다. 조씨는 이번 전시에서 한국화를 비롯, 문인화, 서예, 화조도 등 50년 넘게 합쳐온 다양한 작품들을 총

망라해 선보인다. 조씨는 지난 1983년 동림미술연구원을 개설한 뒤 360여명의 회원들과 15차례에 걸쳐 '송묵회전'을 치러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Daewon Travel (주)대원여행사, Taebaek Mountain Snow (태백산 눈꽃), and Jeong Dong-jin (정동진 일출) tours. Includes train schedul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Geumsoo-jeong Hotel (금수장 호텔 아리랑 하우스). Features a large spread of food, hotel amenities, and contact information.